

시티넷 제32차 집행위원회 논의사항 및 주요성과

장영민 사업부장 ychang@citynet-ap.org
시티넷

개요

시티넷은 아시아태평양의 135개 시정부와 기관 및 기업회원으로 구성되며 공통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1987년 유엔과 아시아태평양지역 27개 도시의 지지 아래 결성된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집단적 지혜와 경험을 지닌 강건하고 역동적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11월 시티넷 사무국은 베트남 후에시와 공동으로 시티넷의 연례행사인 '제32차 시티넷 집행위원회'와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주최했다. 본 행사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지속가능한 아시아 도시들의 미래'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시장, 부시장, 고위공무원, 다자기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시티넷 집행위원회는 아시아 도시들의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회원도시간에 공유하고 그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시티넷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유연식 전 서울시 국제교류사업단장이 시티넷 회장도시인 서울시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시티넷 사무총장,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과제의 도출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집행위원회 회의에 이어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회원 도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발전 과제들과 앞으로

의 다양한 기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의 도시개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였으며, 2016년 개최 예정인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그림1 부산시 신연성 국제관계대사가 제 32회 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상), 오프닝 포럼행사 모습(하)



그림2 유연식 전 서울시 국제교류사업단장이 베트남 주요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회의(Habitat III)’를 위한 아시아 회원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모델 도출 등 가시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틀간의 국제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녹색기술센터(GTC-K), 한국교통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CDIA), 시티넷 사무국 등이 각 세션을 주최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후에, 자카르타, 산 페르난도, 하노이, 심천 등 다양한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도시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 중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기반시설 파이낸싱(Urban Infrastructure Financing Op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현지 관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시티넷사무국과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가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숍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서 시티넷에게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지식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32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2014년 시티넷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도시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 시티넷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우선순위를 설

표1 시티넷 신규가입 도시, 기관 및 기업

회원분류	명칭	국가
	탐키(Tam Ky)	베트남
정회원	수방 자야(Subang Jaya Municipal Council)	말레이시아
	마카사르(Government of Makasar City)	인도네시아
	템플대학교, 일본 캠퍼스	일본
	세계자원연구소 (World Resources Institute China)	중국
준회원	갈레발전기금(Galle Development Foundation)	스리랑카
	빅토리아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 센터 (Centre for Asia Pacific Initiatives, University of Victoria)	캐나다
기업회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Operations Pte Ltd.)	싱가포르

정하고 관련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시티넷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단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의 특징인 가파른 성장속도와 급격한 인구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아시아에 특화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설정된 아시아의 도시발전 방향을 2016년에 열리는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회의(Habitat III)’에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본 회의에서는 3개 도시와 4개 기관, 1개의 기업이 시티넷 회원으로 새로 가입했으며, 2015년 제33차 집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시에서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림3 시도아르조시와 시티넷이 내년 집행위원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시티 넥스트 : 미래 도시의 조건 (What's Next for your City?)

이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인 에이브포인트(Ave Point)사와 크림슨로직(Crimson Logic)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 도시 프로그램 시티넥스트(CityNext)와 아시아 도시과제의 기술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스테판 쉬오에스트로엠(Stefan Sjoestroem)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공공부분 부사장은 시티넷 사무국과 함께 실시한 '시티넷 회원도시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아시아도시 클라우드 컴퓨팅 설문조사 결과

1. 1,000명 이상의 컴퓨터 업무인력을 지닌 대도시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통 혹은 보통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일부만이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고위직 공무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현재 많은 도시들이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업무에 적용하기를 망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가상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안과 투명성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에이브포인트사의 공동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티아니 지양 박사(Dr. Tianyi Jiang)는 '전자정부 솔루션과

그림4 스테판 쉬오에스트로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공공부분 부사장이 시티넥스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보다 나은 도시서비스 관리를 위한 서류관리, 도시포탈, 상황관리, 펀드관리 등에 알맞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새롭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크림슨로직사의 동남아시아지부 로신용(Loh Sin Yong) 이사는 회복탄성력이 있고 강건하며 투명한 사법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표했다. 그는 사법시스템의 영향력과 효과성 측정방안을 논의하고, 높은 투입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계적인 실행, 실행가능한 사업모델 설계,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 설계 등을 시스템의 핵심성공요인으로 밝혔다.

녹색 기술센터-녹색 도시를 위한 아시아도시협력 (Green City to City Cooperation in Asia)

이 세션은 녹색기술센터 주최로 녹색기술 사례와 녹색 기술을 사용한 도시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심을 모았다. 녹색기술센터는 한국정부 출연기관으로 국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개선을 담당하는 한국정부의 싱크탱크이다.

심천시 신에너지교통 선도그룹사무소(Shenzhen Leading Group Office of Promotion and Application of New Energy Vehicles) 시양젠 루(Xiangzhen Lu) 차장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 발전을 이루고자 중국 심천

그림5 녹색기술센터의 김석준연구원이 녹색기술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시가 추진한 민관협력 사례를 발표했으며, 산업발전, 정치 혁신, 그리고 대체에너지 교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칭화대 쉰홍 셴(Qunhong Shen) 공공정책학 교수는 6개 도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들을 비교하여 중국도시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말했다. 이 발표에서 도시 공무원들의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과 직선적인 목표 지정을 핵심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시티넷-아시아의 녹색도시 (Green Cities in Asia)

이 세션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선임전문가 소냐 샌드후(Sonia Sandhu)와 유엔해비타트 베트남 사무소의 우엔 황(Nguyen Quang)이 좌장을 맡아 ‘아시아에 있는 녹색도시 이니셔티브스 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소냐 샌드후는 최근 프로젝트인 ‘녹색도시 액션플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베트남 후에시를 포함하여 3개 도시의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했다(표3 참조).

표3 녹색도시 액션플랜(Green City Action Plan)

1. 녹색도시발전은 하나의 과정이다.
2. 녹색도시발전의 전략은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3.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역할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4. 수혜당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의견일치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5. 포괄적 계획은 짧은 기간 동안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6.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도 역량강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엔 황은 다낭과 호이안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녹색발전의 개발전략’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표4참조).

이어 시티넷 부사무총장이자 자카르타시 선임자문인 아이사 토빙(Aisa Tobing)은 ‘자카르타의 지속가능한 녹

그림6 서울시가 주최한 환영만찬 중 집행위원회 대표들의 단체사진(상), 환영만찬 중 시도아르조시 전통춤 공연모습(하)



그림7 아시아지역 도시기반시설 파이낸스에 관한 세션에서 후에시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모습



표4 녹색성장 발전전략

1. 깨끗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2. 녹색생산(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청정산업)
3. 녹색생활양식과 지속가능한 소비 증진

색성장’을 주제로 발표했고, 뒤이어 베트남 후에시 해외무역과장 판 칸 후이(Phan Canh Huy)와 필리핀 산 페르난도 시장 파블로 캄포스(Pablo Campos)는 각 도시의 녹색성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 도시개발 이니셔티브 :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기반시설 파이낸스 (Urban Infrastructure Financing Op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이 세션은 특별히 베트남 참가자들을 위해 개설되어 베트남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원조방향에 대해 배우고 자금지원 방법들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베트남 인프라추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스마트 도시 교통 (Smart Urban Transportation)

지속가능한 지능형 교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4가지 발표로 이루어진 이 세션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했다. 예충렬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물류’를 주제로 아시아 도시의 화물수송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트래킹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스마트 물류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에시 도시관리부장 우엔 벳 방(Nguen Viet Bang)과 자카르타 교통위원회 전문연구원 일 달야티아 리니(Ir Daryati A Rini)는 각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박경욱 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주제로 한국의 전기차 공유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시티넷 분과모임 (CityNet Cluster Meeting)

시티넷 분과모임에서는 시티넷사무국 직원들과 분과모임 관계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

향을 제시했다. 4가지 시티넷 분과모임(재난관리, 기후변화, 인프라, 새천년개발계획)의 지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각 분과모임 선두 및 참가도시와 기관들의 주도적인 실천방향에 대해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분과모임의 선두 대표가 한해 동안 진행된 워크숍 및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특히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공동 의장기관인 개발연구사회(Society for Development Studies)의 대표인 비네이 랄(Vinay Lall)은 새천년개발계획의 후속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설명하고 새천년개발계획 분과모임이 앞으로 후속 아젠다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림 8 시티넷 인프라 분과모임의 선두도시인 서울시를 대표하여 박미정 주무관이 발표하는 모습



시티넷 국가지부 회의 (CityNet National Chapter Meeting)

국가지부 회의는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국가지부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시티넷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단은 국가지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녹색기후기금 등 공적개발 원조자금 조달과 함께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시티넷 사무국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림9 시티넷 사무총장이 국가지부의 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



이러 Habitat III에서 ‘지속가능한 아시아 도시들의 미래’를 주제로 시티넷의 견해를 발표하기 위해 국가지부가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티넷 사무총장은 아시아만의 도시화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 시티넷 회원도시 모두의 중요한 협력 목표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임을 언급했다.

시사점

아시아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티넷 집행위원회는 매년 집행위원도시 대표들과 회원도시 관계자들의 참여로 열린다. 이번 제32차 집행위원회는 도시관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파트너들과 세미나를 연계함으로써 많은 참가자들이 아시아도시의 개발과 우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시티넷 회원도시들이 합심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2016년에 개최 예정인 Habitat III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어낸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티넷은 집행위원회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를 비롯한 국

그림10 여러 도시의 대표들이 차기 집행위원회를 기약하며 환송만찬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내 회원도시와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티넷은 국내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국내도시 관계자들의 참여를 더욱 넓혀 그들의 우수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여 아시아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한다. 